

# 강진군 군동면 안풍마을

## '좋은이웃 밝은동네' 대상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



강진군 군동면 안풍마을이 '2019 좋은이웃 밝은동네'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좋은이웃 밝은동네는 전남도와 광주시, 지역 언론사(KBC 광주방송)가 상호 협력하여 건전한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지역사회미담사례를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고 있으며 전남도에 9개 팀과 광주 7개 팀이 선정됐다. 안풍마을은 고즈넉하고 고풍스러운 한옥마을로서 2009년 전라남도 행복마을에 선정되었으며 주민소득과 마을발전을 위해

우미건설(주)과 1사 1촌 지매결연, 공익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의와 1사1촌협마을 지매결연, 고령화되는 농촌마을의 안정적인 발전도모를 위해 고마미지(주)와 1사 1촌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발전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주민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주민주도형 사업인

전남도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에 2018년 씨앗단계를 거쳐 2019년 새싹단계에 선정된 바 있다. 부녀회원들이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에 노출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가정에 방문해 정기적으로 이불 빨래를 수거 및 세탁하여 배달하는 윈스톱 복지 방문서비스인 이불빨래방을 운영하여 2018년 전남 우수마을공동체에 선정되었다. 소통과 화합으로 마을공동체 형성하는 한편, 향기나는 마을가꾸기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마을로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안풍마을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만원을 받는다.

강진군의 역대 수상내역으로 2011년 신전 대벌마을 밝은동네 으뜸상, 2012년 성전 달마지마을 밝은동네 버금상, 2013년 군동 비자동마을 밝은동네 버금상, 2014년 강진 신성마을 김정식 좋은이웃 버금상, 2018년 성전 달빛한옥마을 밝은동네 으뜸상, 강진 의용소방대연합회 공모상이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영암군, 아천미술관 가을 특별기획 '남도천리展' 개최

영암 아천미술관에서는 올해로 17번째 맞이하는 가을 특별기획 '남도천리展'이 지난 11일 오픈식을 갖고 내달 9일까지 열리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서를 만끽하게 된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동평 영암군수를 비롯해, 군의장, 군의원, 미술관 관계자, 참여작가, 지역주

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남도천리展'은 영암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 농촌을 예술작품으로 새롭게 승화시키고, 남해안의 구석 구석을 전문 예술가들과 함께 탐사 후 한점 한점 그려낸 아름답고 격조높은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아천미술관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예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영암만이 갖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등 품격있는 지역문화 예술의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완도군, 지역특화림 공모사업 선정

완도군은 전남도에 주관하는 2020년도 지역특화림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남도에서는 지역별, 품목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비교우위의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소득숲 규모화·단지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화림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군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황칠 특화림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가용지구 사업지와 연계하여 중도지구 군유림

일대에 황칠특화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완도 중도지구 황칠특화림 조성 계획은 30ha 면적에 4년 생 이상의 대묘 황칠나무 1만 본을 보철에 식재하여 기존 사업장과 연계한 86ha의 대규모 황칠특화림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아울러 군은 우수한 품질의 황칠 특산품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생산지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완도 황칠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 완도황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한 바 있다.

황칠나무는 금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원료 목록에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한 원료로 분류됐다.

이에 동물실험 등을 통해 인체의 안전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황칠을 원재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완도황칠 약리활성 및 안전성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황칠산업의 중심에는 완도군이 있다."면서 "황칠은 완도의 고유 수종이고 새로운 가치 창출이 절실한 자원으로 황칠산업화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함평군 생활개선회, 국향대전 기간 추억의 장터 운영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엄마고마워' 전시관서



한국생활개선 함평군연합회(이하 생활개선회)가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 추억의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생활개선회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17일 간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이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 내 '엄마고마워' 전시관에서 추억의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운영은 지난 4월 나비축제에서 처음 선보였던 추억의 먹거리 장터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면서 전격 결정됐다.

이번 국향대전에서는 지난 나비축제 때와 달리 과거 초가집을 그대로 재현해 운영할 예정이며 떡메치기,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등 다양한 체험놀이와 잔치국수 등 추억의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또한 장터가 운영되는 '엄마고마워' 전시관 인근에 145.2㎡ 규모의 텃밭을 새롭게 조성하고 배추·당근·무 등 각종 채소류와 국화·핑크물리 등을 다수 식재하면서 가을 풍경을 담은 포토존을 연출하기도 했다.

유순옥 생활개선 함평군연합회장은 "추억의 먹거리 장터를 통해 고향에 대한 추억과 함평의 넉넉한 인심을 표현할 계획"이라며,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체험·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진도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실시

65세 이상·12세 이하 어린이·임신부 등 무료

진도군이 15일부터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에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36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시작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정 의료기관은 진도노인전문요양병원, 진도전남병원, 진도한국병원, 성

심의원, 진도이비인후과의원, 한마음의원, 진도의원, 연합의원, 세종의원, 현대의원, 효사랑의원, 조도은혜의원 등 12개소이다.

36개월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의 지정 의료기관은 진도한국병원, 진도이비인후과의원, 한마음 가정의원, 효사랑의원이다.

올해 임신부와 출생 후 영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무료접종으로 확대 지원되는 임신부는 보건기관과 진도한국병원, 효사랑의원

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진도군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무료접종대상자를 50세~64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결핵이유주성(본인)까지 확대·시행하며, 보건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노년층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만성 심·폐질환, 만성간·신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급속히 악화 될 수 있으니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반드시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